



아모레퍼시픽, 신본사에 '시스코 DNA' 도입으로 직관적인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완비

아모레퍼시픽그룹

- 서울, 대한민국

비즈니스 과제

- 2011년 착공에 돌입한 신본사에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필요
- 소통과 협업을 최적화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위한 인프라 과제
-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량 인프라 필수

솔루션

- 시스코 DNA Center-SDN Controller
- 시스코 Catalyst 9500, 3850, 3650
- 시스코 액세스포인트 Aironet 3800

- 시스코 무선 컨트롤러 5520
- 시스코 Nexus 7004, 7710
- 시스코 ISR 4351
- 시스코 VG 310

비즈니스 성과

- IBN을 기반으로 직관적인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완비
-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통해 네트워크 설치 및 구성 작업 간소화, 운영 관리도 자동화/지능화
- SD-Access 기술을 통한 패브릭 네트워크 상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유연하게 망 분리 가능, 음성과 데이터 망 분리 운영으로 안전성 강화
-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 요구도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인프라 구현

최근 용산 신본사로 이사를 마친 아모레퍼시픽은 아시안 뷰티(Asian Beauty)로 전 세계 미(美)의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글로벌 행보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기업이다. 1945년 개성에서 창업한 아모레퍼시픽은 1956년 신본사 부지(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에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1975년에는 10층 규모의 사옥을 준공,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어느새 아모레퍼시픽의 꿈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화장품 이상의 '아름다움'을 향해 가고 있다.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대한 기업(Great Brand Company)'이자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진해 나가겠다는 게 오늘날 아모레퍼시픽의 약속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이 같은 약속은 2017년 11월 그 모습을 훌륭히 드러낸 '달항아리'를 모티브로 한 신본사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 도시 미관과의 조화, 바람길까지 고려하여 최고 3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에 반대를 무릅쓰고 22층 빌딩을 지었다. 또한 저층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업 공간 대신 임직원은 물론 방문객,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개방형 문화 공간으로 꾸몄다. 단순히 화장품을 팔기 보다는 '아름다운 공간'을 함께 향유하고 '아름다움'의 문화까지 전파하고자 하는 아모레퍼시픽의 철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6~21층에 위치한 사무공간은 자유롭고 유연하게 소통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지향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을 위한 새로운 업무 공간 마련에 역점을 뒀다. 실제로 임직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무실 내 칸막이를 없애고, 회의실은 투명 유리벽으로 만들었다. 곳곳에 상하층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 계단을 만들어 이동의 제약도 최소화 했다. 또한, 세계 각국으로 확장일로에 있는 지사들과의 소통과 협업도 강화할 수 있게 화상회의 장비를 갖춘 회의실과 데스크도 크게 늘렸다.





이렇듯 새롭게 혁신화된 워크플레이스에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 이니스프리, 에스쁘아, 아모스프로페셔널, 에스트라 등 뷰티 계열사 임직원 3,500여명이 근무한다. 또한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등 '5대 글로벌 챔피언 브랜드'를 주축으로 약 30여개 브랜드 사업이 이곳에서 모두 전개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새 옷을 입은 신본사를 기반 삼아 새로운 도약도 준비 중이다. 중화권·아세안·북미 등 3대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중동·서유럽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규모도 엄청나서 연면적 18만 8,902제곱미터(약 5만 7,150평)이 넘는다.

아모레퍼시픽 신본사 착공이 2011년부터였다면 아모레퍼시픽의 정보기술 Division이 신본사 네트워크 인프라 설비를 위해 본격적으로 바빠진 건 준공을 얼마 앞두지 않은 2016년부터다. 수십년 후 비즈니스 상황까지 지원하고 담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가능한 미래 지향적인 신기술을 채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 설계가 최대 관건

아모레퍼시픽 정보기술 Division은 회사로부터 신본사에서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변화 관리가 가능해야 하니, 시간과 장소에 어떤 제약도 없이 모바일 워킹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과 365일 24시간 서비스 품질을 보장해야 할 것을 중점 과제로 받았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1:1 회의는 물론 다자간 회의가 국내 간은 물론 글로벌 지사와도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신본사의 디자인적인 특징점을 면밀히 고려하는 동시에 신기술 트렌드 파악에 총력을 기울였다. '스스로 학습, 적응하고 진화하며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직관적인 네트워크'인 인텐트 기반 네트워크(Intent Based Networking, 이하 IBN) 아키텍처에 관심이 모아졌다. 자유롭게 유연하게 소통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지향한 물리적인 사무실 설계에도 최적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음성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별도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점도 큰 강점이었다. 이에 IBN에 준비된 시스코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설계를 시작해 2017년 4월에는 최종 디자인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모레퍼시픽 정보기술 Division은 회사의 요구에 보다 완벽하게 부합할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고, 시스코가 2017년 6월 IBN을 보다 완벽하게 지원할 '시스코 DNA(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발표하자 네트워크 인프라 디자인을 일부 변경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도 미래형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설치 작업 직전까지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정보기술 Division 김진우 상무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네트워크 인프라는 최대한 자동화되고, 직관적인 운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또한, 복잡해져만 가는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현함에 있어 IBN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흐름을 선도하는 시스코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다"고 밝혔다.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네트워크 인프라는 최대한 자동화되고, 직관적인 운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또한, 복잡해져만 가는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을 구현함에 있어 IBN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 흐름을 선도하는 시스코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다”

아모레퍼시픽 정보기술 Division
김진우 상무

시스코 DNA Center로 수백대의 유선 액세스 장비 설비 간소화, 관리감독도 지능화

결국 아모레퍼시픽은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모니터링 대시보드인 시스코 DNA Center를 통해 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 작업 전반을 중앙에서 보다 효율적이며 손쉽게 처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스코 카탈리스트 9500을 추가로 도입, SD-Access 패브릭 환경을 구성하여 DNA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네트워크 인프라 설치 작업 시점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시스코 DNA Center는 설비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엄청난 규모의 신본사를 커버하기 위해 설치된 수백대에 달하는 유선 액세스 장비를 프로비저닝하는 과정을 크게 간소화시켰다. 과거에는 대당 10여 라인의 코딩을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했다면 두 세번의 클릭만으로 작업이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제품을 적용하다 보니 설치 작업 자체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상황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코 엔지니어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직관적이고 간소화된 작업 과정은 일정 안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코 DNA Center의 또 다른 강점은 어슈어런스(Assurance) 기능이다. 이는 강력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상의 대량의 데이터를 분류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한다. 또한, 머신러닝을 통해 예측 분석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협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처함으로써,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 주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에 무선 액세스 장비도 일체 시스코 제품으로 도입했다. 진정한 IBN을 위해서는 유선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무선 장비에서부터 네트워크를 자동화하고 복잡한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후 무선 액세스 장비들도 시스코 DNA Center에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 전반을 자동화, 지능화함으로써, 보다 전략적으로 비즈니스를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스코 DNA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세계를 향한 비즈니스 지원 앞장설 터

정보기술 Division 김진우 상무는 “아직은 시스코 DNA를 근간으로 데이터 및 음성 네트워크 외에도 네트워크 전반을 IBN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서,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성과를 논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시스코 DNA는 Globalization에 속도를 내고 있는 회사의 전략방향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 정보기술 Division은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를 근간으로 세계 속에 진출해 있는 해외 지사들까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합, 보다 긴밀하고 유연하게 소통과 협업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이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화장품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 정보

시스코 DNA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cisco.com/kr/DNA 를 참조하십시오.
아모레퍼시픽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pgroup.com/int/ko 을 참조하십시오.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 Cisco Systems Korea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5층 (우)06164 5F ASEM Tower, 517,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Korea
Tel 02.3429.8000 Fax 02.3453.0851 제품 및 구매문의 080.808.8082 홈페이지 www.cisco.com/kr

twitter twitter.com/CiscoKR **facebook** facebook.com/ciscokorea **Blog** www.ciscokrblog.com **YouTube** Cisco Korea

©2018 Cisco and/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